

제 4대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 착좌

대전교구 유흥식(라자로) 주교가 4월 6일 경감룡 주교의 뒤를 이어 제 4대 대전교구장에 착좌했다.

대전 총무체육관에서 한국 주교단과 교구 사제단, 수도자, 신자 등 6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거행된 교구장 착좌미사에서 유 주교는 신임 교구장 임명을 발표한 교황대사 에밀 폴 체릭 대주교와 경감룡 주교 인도로 교구장좌에 착좌했다.

유 주교는 취임사에서 "주교 직무를 수행하면서 하느님 앞에 '많이 봉사했

다', '많이 사랑했다'고 고백할 수 있는 참 신앙인으로 부끄럼 없이 사는 은총을 청하고 싶으며, 우리 함께 세상의 빛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, 성가정을 담은 공동체로 살아갔으면 한다"고 소망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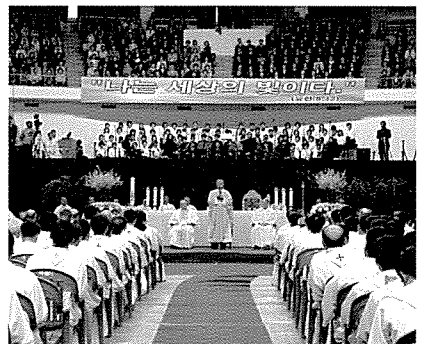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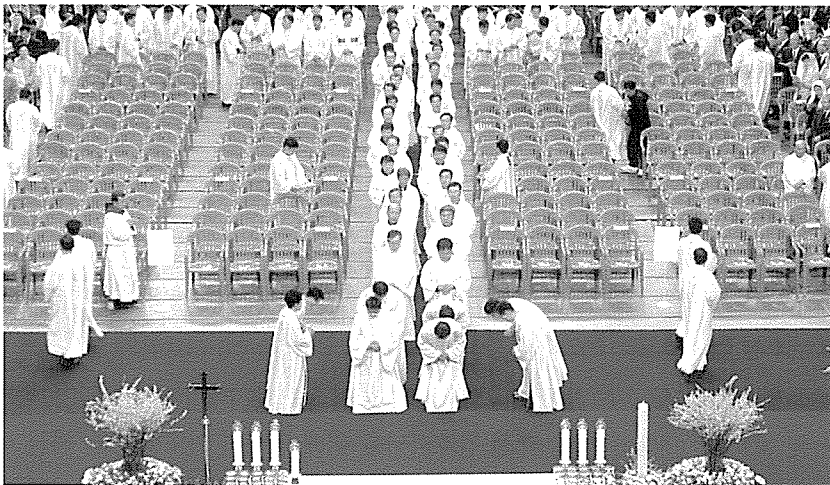
이날 행사는 선종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애도기간이어서 축하연은 생략하고 착좌미사와 간소한 축하식으로 진행됐다.

유 주교는 대전 가톨릭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03년 6월 24일 교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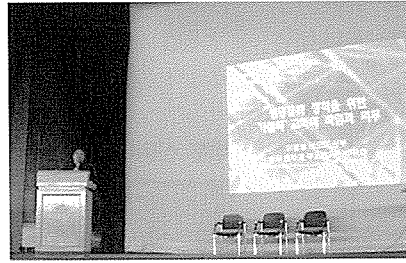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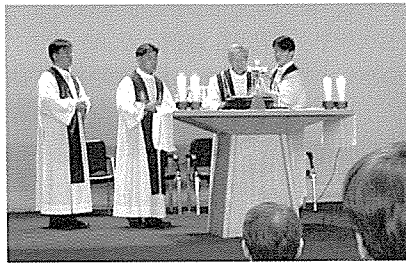
장 승계권을 가진 대전교구 부교구장 주교로 임명됐으며, 그 해 8월 19일 주교품을 받고 그동안 경 주교를 도와 교구 사목을 보좌해왔다. 또한 지난해 10월 주교회의 가을 정기총회에서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돼 사회복지위 소속인 한국가톨릭의료협회도 맡고 있다.

이날 착좌식에는 한국가톨릭의료협회 회장 최영식 신부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유주교의 착좌를 축하했다.

이연숙(평화신문 기자)



01 제 13차 세계병자의 날 행사 개최



2월 11일(금) 제 13차 세계병자의 날을 맞아 건강이라는 주제에 대해 성찰

을 촉구하고 환우들을 위로하는 행사가 개최됐다.

지난 12일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는 한국가톨릭의료협회와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주관으로 '제 13차 세계병자의 날 기념행사'를 열었다.

이날 행사에는 한국가톨릭의료협회장 최영식 신부와 의무원장 남궁성은 교수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호스피스 봉사자, 간호사협회 회원, 약사회 회원, 본당 신자 등 220명이 참석했다.

행사의 주요 내용을 보면 ① 교황청 담화문 낭독(박혜자 가톨릭간호사협회장) ② 제 1특강 : 전 세계의 에이즈 감염현황과 대책(최영길 대한에이즈협회 관리부장) ③ 제 2특강 : 생명윤리 가톨릭교회의 책임과 의무(이창영 신부) ④ 최영식 신부 집전의 기념미사가 있었다.

02 한일교류 日 성마리아병원 이사장 협회 방문 가톨릭가정간호 호스피스 준비위원회에 1,000만 원 기부금 전달

일본 성마리아 병원이사장 이데요시오(井手 義雄) 외 병원 간부 3인이 2005. 3. 16부터 4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'아시아 태평양 호스피스 학술대회' 참석차 한국에 입국했으며, 3. 17에는 한국가톨릭병원협회를 방문하여 최영식 회장 신부 및 보직자를 접견하고 오는 7월초에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되는 한일정기운영위원회와 관련된 내용 외 현안문제를 협의했다. 이 자리에서 CMC 가톨릭가정간호 호스피스 준비

위원회에 100만 엔(한화 1,000만 원 상당)의 발전기금을 희사했다. 이밖에도 방문한 간부들이 강남성모병원을 방문하여 병원을 견학하는 등 교류활동을 진행했다.

